

거대도시 서울을 비추는 시정연구의 거울이 되기를 ...

권 원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는 「뉴·밀레니엄」을 즈음하여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돌풍에 휩싸여 있다. 인류역사로 보아 인쇄매체에 의한 지식독점체제의 붕괴에 못지 않은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이야말로 경제활동, 도시행정, 소비문화 등 일상적인 市民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진법 그물망」 사회의 도래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일반시민도 정보의 과다노출로 말미암아 분석처리기능이 마비되어 있는가 하면 전문연구자들마저도 「데이터」의 密林 속에서 헤매는 정보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전락될 지경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행정의 과학화를 표방하는 우리 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서울市政을 지원하는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과 개발지상주의 행정관행을 시민중심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기여가 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hink-Tank로서 한계와 自省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당면한 연구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는 데 진력하다 보니 학문적 성향도 미래지향적(proactive)이기보다는 현실대응적(reactive)으로 흐르기 쉬웠다. 따라서 「서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마저 해볼 여유가 없었다. 여기에 「서울도시연구」誌를 창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도시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서울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적인 거대도시이며 한국자본주의의 심장이기도 하다. 개발연대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으며 현재는 IMF 환란 극복의 선두주자이다.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의 도시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아직도 이념적 대립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교통혼잡, 주택난과 높은 지가, 대기와 수질오염, 빈곤과 실업, 범죄와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도시문제가 「콜라주」를 이루고 있다. 만약 서울의 복잡다단한 도시문제가 도시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이는 범지구적 도시문명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치유하는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과 진배없다.

도시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서구제국의 200년을 약 40년으로 단축한 서울의 성장과 관리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縮時的 도시화로 말미암아 표출된 성취와 역작용은 깊이 천착되어야 할 풍부한 연구의 광맥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80억 인류의 절반 이상이 10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 27개중에서 22개가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발굴된 도시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장차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다른 거대도시에게는 국제적인 상품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誤診과 실패한 치료방안도 값진 교훈이자 반면교사로서 효용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굳이 선형적인 진보관에 입각한다면 사회발전단계에 일시적 도약(jump)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생략(skip)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이제까지 국내의 도시관련학계는 이른바 정체성 없는 학문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 도시이론을 '수입오포상'처럼 증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방법론적인 식민주의의 침병이 되어 버렸다. 이론적 가정이 다른 서구모델을 한국도시 현실에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못이 안 보인다고 아무 데나 휘둘러대는 망치처럼 위험하다. 自生이론이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는 것은 외국 학문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만 있었지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고민'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도 한국적 도시론이라는 신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아 당당한 평가를 받고 서울도 국제적 정보 발신지로 부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토착이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서울도시연구」誌를 발간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서울도시연구」는 이론과 실천의 접목을 시도한다. 우리에게 高談峻論도 필요하지만 實事求是의 문제 해결을 외면해서도 아니된다. 實在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식은 허망하고, 이론적 근거가 없는 실천은 허구인 까닭이다. 생산되는 이론은 이러한 전문 학술지에 의해 유통되고 행정가와 시민을 위하여 소비된다. 이제, 지난 7년간 「서울시정포럼」과 「서울시정연구」를 내놓아 서울의 도시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우리 연구원에서 학문적 금지를 내걸고 官·學·研이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知的으로 열린 공장을 마련하였다. 서울을 연구하는 도시학자, 연구자, 실무자, 이론가, 시민운동가들이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총본산으로서 새로운 地畵을 열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산물이다. 아무쪼록 巨大도시 서울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울도시연구」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